

# 송아지의 發作性血色素尿症

李 容 植

益山家畜病院

하루에 配合飼料를 平均 3kg 給與하고 繁殖하여 靑草를 任意로 採食케 하는 營養과 發育이 좋은 송아지(5月令, 牝, 韓牛)로서 初診前日에도 平日과 같이 元氣와 食慾이 旺盛하였으나, 저녁 사료를 먹은 다음 約 10liter 정도의 물을 마시고 約 30分 後에 갑자기 呼吸困難, 震戰, 歩行踳踉, 腹部膨大(가스 充滿)를 일으키면 呻吟하므로 「실리론」劑를 服用시켰더니 다음날 아침(初診當日) 가스는 除去되었으나 눈이 썩 들어가고 기타 一般症狀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다고 한다. 첫 病狀이 나타난 후 赤色尿를 몇 차례 排尿하였음. 約 15日 前에 飽食後 물을 한바게쓰 정도 마시고 떨리기가 있었으나 數時間 後에, 갈아앉인 일이 있었다고 한다.

初診時(1975年 11月 11日 10時) 起立하고 있었으며 맥박수 100/분, 호흡수 110/분, 체온 40°C 였다. 心動은 不整亂調하고 呼吸困難(鼻呼吸 및 腹式呼吸)하며 兩側 肺臟에서 심한 「랏셀」音, 鼻鏡乾燥, 耳肢의 皮溫은 冷하고 眼球陷入하였으며 結膜을 비롯한 기타 司視粘膜炎은 貧血, 腹圍는 正常이었으나 第1胃의 運動은 없었고 震戰, 後肢의 強拘, 發汗한 흔적이 있었으며 步樣踳踉, 呼吸時마다 가볍게 呻吟하고 採食, 飲水 및 反芻는 絶止하고 索引運動中 少量의 軟糞을 排出하였으며, 同時에 少量의 血色素尿를 排尿하였다.

따라서 暫定的으로 發作性血色素尿症으로 診斷하고 5% 葡萄糖加 「린겔」液 1,000ml 와 「안나가」注 10ml 를 정맥주사하고 重量 30g 을 頓服시킨 다음 糞을 두둑히 갈아주고 溫暖케 하여 安靜시키도록 지시하였다.

初診當日 17時에도 初診時의 症狀과 大差 없었고 呼吸困難하며 특히 伏臥하면 더욱 呼吸이 困難해지고 더욱 呻吟하므로 再次 다음과 같은 處置를 하였다. 7% 重曹水, 60ml 정맥주사, 「안나가」10ml 와 「비타민」K<sub>3</sub> 10ml 를 피하주사, 「페니실린」 2百萬單位 근육주사,

「비타민」K<sub>3</sub>는 出血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리고 「페니실린」은 肺充血로 인한 肺炎을 예방할 목적으로 투여하였다.

다음날 10時頃에는 前日 저녁때 보다 多少 호전되는 듯 하여 물도 조금 마시고 靑草도 한주먹 정도 먹는 듯하다가 다시 惡化되어 發病當時의 症狀이 있었고, 이때 少量의 尿를 排尿하였으나 血色素尿는 아니었다. 맥박수는 90/분, 호흡수는 100/분, 체온은 39°C 였다. 「린겔」液, 1,000ml 와 7% 重曹水 60ml 를 정맥주사하고 「안나가」 10ml 와 「페니실린」 2百萬單位를 근육주사하였다. 投藥이 끝난 다음 排尿가 있었으나 血色素尿는 아니었고 若干의 軟糞을 排糞한 다음 一變하여 元氣를 회복하고 고개를 쳐들며 飼料를 要求하는 듯하므로 물을 주었더니(5 liter 로 制限) 마시고 畜主의 손, 衣服 또는 사료통을 빈번히 핥으므로 靑草를 주었더니 旺盛하게 먹으므로 反芻發現時까지 制限토록 指示하였다.

第3日째 10時 맥박수는 70/분, 호흡수는 100/분, 체온은 38.5°C 였으며, 元氣를 회복하였고 一般狀態도 良好하며 採食, 反芻도 旺盛하여 그 후 순조로이 회복되었다.

송아지에 있어서 寒冷時 물을 많이 마시고 나서 發作性으로 血色素尿症이 發生되는 예는 간혹 볼 수 있었으며, 本例는 其中에서도 심한 예이었다. 대개는 一般症狀의 惡化와 더불어 一過性으로 血色素尿를 排尿하여 飼育者를 당황케 하지만 自然히 또는 치료에 의해서 회복된다. 血色素尿의 發生機序는 不明이다. 重曹水의 정맥주사는 取瘻을 완화할 목적으로 쓰여졌는데 이 외에도 配性乳의 치료, 어떤 종류의 藥物中毒, 毒癩疹, 急性皮膚炎, 濕疹, 電擊, 眼瞼結膜炎, 火傷 등의 치료에도 使用된다.

(전라북도 이리시 중앙동 3가 147, 전화 3889)